

HOME > 뉴스 > 자치구공단

마포구공단, 첨단 드론기술 활용해 '시설물 혁신점검' 완료

✎ 김혜란 기자 | ⌚ 승인 2025.08.26 21:30

드론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과 동영상 데이터' 분석 통해 건물 완벽 보수



드론을 활용해 고해상도로 촬영한 건물의 모습

[시정일보 김혜란 기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일용)은 지난 8월2일과 9일, 양일간 구청사의 드론을 활용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간 점검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고층부 외벽(커튼월)의 누수를 고해상도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보수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공단은 임직원 누구나 필요 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 130여명의 직원들이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자격을 취득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서별 2명씩 총 12명을 대상으로 사내강사(과장 이경환)의 비행 실무교육이 각각 6시간씩 실시됐다.

공단의 한일용 이사장은 “점검기술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4차산업혁명 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혁신적인 점검기술을 공단이 관리 중인 모든 시설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나아가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의견을 말했다.



김혜란 기자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